

새싹편지 8

8월 행사 소식

08.24 : 우송대 유아교육과의 제1회 졸업생이 생겼다.



어김없이 밝아오는 아침, 기상캐스터는 8월 24일을 가리키며 많은 비가 올 것을 가르쳐주었지만 기분만큼은 화창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좋은 날이다. 바로 우송대 유아교육과의 첫 조기졸업생이 탄생하는 날이다. 우송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부모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북적였고, 졸업생들은 학교라는 곳에서 벗어나 사회에 한걸음 내딛는다는 것이 기대가 되는 듯 조금은 어수선하고 들떠보였다. 이 중 유아교육과의 학생은 총 61명으로 많은 학생이 조기졸업을 하여 다른 과보다 높은 열기와 함성으로 졸업식장의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졸업식의 이모저모



식순이 끝난 후 교수님과 학생들이 단상에 모여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졸업식에서 학사모의 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재학생에서 졸업생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의미한다. 존앤디컷 총장님께서 단상에 올라온 각 학과를 대표하는 학생들의 학사모 술을 왼쪽으로 넘겨주며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해주셨고, 이와 동시에 자리에 앉은 학생들도 자신의 술을 넘기며 스스로 졸업을 맞이했다.

유아교육과 졸업생 대표 이예지 학생



성원경 교수님과 박지영 학생



총장상을 받기 위해 단상을 올라가고 있는 박에스터 학생 (왼쪽에서 두번째)



이예지, 김진영 교수님, 안선경 학생 (왼쪽부터)

졸업생 인터뷰

총장상 수상한 박에스더 선배님



2009년 우송대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생겼고, 그 때의 학생들 중에서 총 61명의 학생들이 졸업했다. 지금의 재학생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그동안 1기 선배님들이 역사가 없는 곳에서 부딪쳐가며 기반을 다져온 덕분이다. 졸업생들을 대표

하여 총장상을 받은 박에스더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유아교육과 1회 졸업생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 졸업식도 마쳤지만 졸업이 실감은 안나요. 예전에는 졸업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뭔가 섭섭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있기까지는 1기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가졌을 09학번 동기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인 것 같아요. 3년 6개월 동안 잘되기를 바라고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주신 모든 교수님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Q. 이번에 특별히 총장상을 받게 되셨는데 가장 평점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이라고 들었어요. 학점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비법 조금만 알려주세요.

: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는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공부 비법도 없는데. 그래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그날 배웠던 부분을 복습했던 것이 학과 공부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 때는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 집중하고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 대충 필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 중에 시간을 내서 그날 진도 나갔던 부분 교재 읽고 수업 중에 적은 필기내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교재를 짚어주시기도 하지만 수업 후에 배운 내용을 교재로 읽어보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Q. 학교 다닐 때 공장 시간이나, 방학이나 방과 후 틈나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궁금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포기해야 하는 건가 고민이 많아요.)

: (저는 특별히 무엇을 한 것 없어서 무엇을 말해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공장 때는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마냥 놀기도 하고 조별과제가 있을 때는 공장 시간에 모여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분반이 달라 공장 시간이다르면 도서관에 가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후나 방학 때는 자기 개발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서 보완하기 위해 저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시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하고 잘 못하고 그런 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먼 훗날 대학 시절을 되돌아 볼 때 추억할 것이 많도록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하거나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그중에 공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신이 지금을 즐기며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Q. 학교생활을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요?

: 지금 되돌아보면 때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수업시간,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 (많이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학과 행사, 보육실습, 교육실습... 그때는 힘들기도 했고,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만 할 수 있는 것들, 그 기분을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시간이 많이 기억 납니다.

Q.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 우송대학교 유아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들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을 끝까지 가지고 학과 일도, 공부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첫 졸업선배들을 보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후배들이 갈 길을 또다시 먼저 터주고 계실 선배님들께 감사하며, 그런 선배님들의 노력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하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됩시다!

7.11~ 8.7 : 3학년, 보육실습을 다녀오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6월 중순, 시원하지 않은 건물에서 오후까지 여름학기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 날들이 진정 행복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바로 7월 11일부터 대전을 비롯해 각 지방의 어린이집으로 흩어져 4주간의 보육실습을 다녀온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들이다.

보육실습은 1세부터 5세 중에 한 반을 맡아 하게 되는데 영아반을 맡은 학생은 몸이, 유아반을 맡은 학생은 마음이 고생을 했다고 했으며, 무엇보다 매일

실습일지를 쓰는 일이 가장 고난이었다고 한다. 어린이집을 돌아보고 온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가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간증을 쏟아냈다고 한다. 또한 실습이 끝나고 여행이나 휴양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기회도 가졌다고 하니 기대와는 달랐던 실습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이다. 인생 최고의 경험을 했을 3학년들의 앞으로의 변화된 모습이 그려진다.

친구들의 방학 엿보기

한국사능력시험 합격!



무료한 여름 방학을 그냥 보내기가 싫어 자격증을 따려고 알아보던 중에 임용시험을 보려면 한국사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 방법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래서 방학동안 문제집 한권을 정독하며 공부했

2-B반 한수진 는데, 특히 국사부분을 꼼꼼히 공부하고 근현대사부분은 고등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험 보는 당일에는 30분 일찍 시험장에 가서 요약노트를 한번 읽어보고 시험을 치렀는데, 집에 와서 채점해보니 합격이었다. 방학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하고, 임용시험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한국사능력시험에 합격하니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 선 것 같다.

여정 동안, 솔직히 말하면 힘들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던 저는 두어 번 정도 아침을 거르고 잠을 청했었고, 올빼미 족이던 제가 10시가 되면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의 경험은 매일 매일 색다르게 저에게 다가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상하이공항으로, 다시 남창공항으로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를 연속으로 타는 경험을 했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음식들을 먹어 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곤혹스러웠던 것은 삼계탕에 닭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오히려 중국에 와서 더 많이 먹는 기분이 들 정도로 다른 음식들은 입에 잘 맞았습니다.

이틀 정도 남창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벗어나면 영어 정도는 거뜰히 듣고, 읽고, 말할 줄 알아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코카콜라 회사, 자동차 제조 공장에 가게 되었고, 루산이라는 곳으로 짐을 옮겨서 그곳을 관광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관광하는 날에 날씨가 좋지 않아, 많은 곳을 둘러보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 루산 입장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원이라고 하는데, 속된말로 본전을 뽑을 정도로 돌아다니지 못해서 루산에서 난창으로 돌아갈 때 속이 쓰렸습니다. ‘아까운 돈.....’ 루산에서 난창으로 돌아온 후로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몇 일 더 머물렀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요번에 난창이라는 곳을 가보았으니, 다음번에는 북경이나, 상하이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크론톤빌에서 떠난 중국여행!

2012년 2월부터 하기 시작한 크론톤빌에서의 기초인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8월 5일에 중국 난창에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뛰어나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석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8박 9일



2-A반 서영은

만드는 사람들 .	지도교수 : 성원경 교수님
	3학년 : 김진희
	2학년 :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1학년 : 박지원 여은솔